

		<b>보 도 자 료</b>		
		배포일자	2022년 8월 16일(화) 총 6매	
담당 부서	예산담당관	담 당 자	• 예산총괄담당 고태수 ☎440-2251 • 사회경제예산담당 문현자 ☎440-2261 • 도시환경예산담당 강 욱 ☎440-1601 • 참여예산담당 유선필 ☎440-2241 • 담당자 채은자 ☎440-2272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1조 7천억 규모 추경 편성해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

- 본예산 대비 13% 늘어난 약 15조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 운용 -
- 민생경제 마중물, 생활밀착형 사업, 원도심 균형 발전 등에 집중 투입 -
- 인천e음 캐시백 852억, 버스 준공영제 907억 등 추가 반영 -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 등 대외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원도심 균형 발전에 집중하기 위해 본예산 대비 1조 7천여억 원이 늘어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예산 규모인 14조 8,677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3조 1,442억 원에서 1조 7,235억 원 (13.1%) 증가한 14조 8,677억 원 규모다. 지방세 초과세입 5,161억 원과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분 2,670억 원 및 국고보조금 2,513억 원 등을 재원으로 했다.

시는 15조 원에 육박하는 확대 재정 운용을 통해 ‘다시 뛰는 인천경제,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더 나은 시민 삶을 위해 시민 안전과 복지, 여가생활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배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일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도시 인프라 보강과 미래세대 투자 및 원도심 균형 발전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 먼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4,917억 원을 편성했다.

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을 852억 원 추가 편성해 예산 규모를 당초 2,192억 원에서 3,044억 원으로 늘렸다. 이번 추경에는 인천e음 캐시백 제도가 지속되도록 예산을 반영했으며, 인천e음 개선방안은 검토 후 8월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돕고자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등 예산 385억 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정부 추경예산으로 올해 상반기에 지급한 운수종사자 한시지원 285억 원도 함께 반영했다.

-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80억원
- ▶ 소상공인 특례보증 : 38억원
- ▶ 택시기사/전세버스 기사/비준공영제 버스기사 : 195억원/70억원/20억원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공동체 일원으로 행복한 시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640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589억 원 등 1,809억 원을 반영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 ▶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 640억원
- ▶ 중위소득 100% 이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589억원
-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 49억원
- ▶ 재가노인복지시설이용 등급자 지원 확대 : 11억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자 버스 준공영제 보전에 907억 원, 도시철도 운영비 555억 원 등 1,537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 ▶ 버스 준공영제 손실분 보전 : 907억원
- ▶ 도시철도 1·2호선 및 7호선 운영비 지원 : 555억원
- ▶ 무임수송 손실금 지원 : 52억원

이 밖에 소규모 농어가 소득 안정과 축산업계 지원 예산도 34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 ▶ 비료가격 안정 지원 : 26억원
- ▶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 3억원
- ▶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 1억원

## □ 다음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899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정부 추경예산과 연계해 집행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 1,258억 원을 반영했으며, 방역체계 보강에 17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향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재난관리기금 600억 원 및 재해구호기금 600억 원의 재원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 ▶ 방역물품 지원 : 57억원
- ▶ 보건소 인력지원 : 27억원
- ▶ 관광지 방역 : 14억원

편리한 교통환경 구현과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을 위해 청라지구~북항간 도로 신설 100억 원 등에 286억 원을 편성했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장비 확충, 도시철도차량 내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교통안전 예산 407억 원도 추가로 늘렸다.

- ▶ 청라지구 ~ 북항간 도로신설 : 100억원
-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확충 : 109억원
- ▶ 도시철도차량 내 CCTV 설치 : 17억원

시민들이 더 많은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50억 원,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 60억 원 등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에 476억 원을 투입한다.

-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 50억원
- ▶ 화개산 관광자원화 : 20억원
- ▶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 : 60억원
- ▶ 음악창작소 개관 준비(9월) : 9.4억원

□ 지역산업 활력 제고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2,776억 원을 편성했다.

만석우회고가교 정비사업 108억 원, 제물포역 도시재생사업 33억 원 등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18억 원을 반영했고, 어촌뉴딜 300 사업 등 섬 마을 정주여건 개선에도 136억 원을 반영했다.

- ▶ 만석우회고가교 정비사업 : 108억원
- ▶ 제물포역 도시재생사업 : 33억원
- ▶ 어촌뉴딜 300사업 : 51억원
- ▶ 어업지도선 운영비 및 수리비 : 2.2억원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에 투자하고자 매입 임대사업 527억 원, 창업 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17억 원, 아동수당 급여 확대 62억 원 등 669억 원을 반영해 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 ▶ 매입 임대사업 : 527억원
- ▶ 창업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 17억원
- ▶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6억원
- ▶ 아동수당 급여 확대 : 62억원
- ▶ 유치원, 초, 중, 고, 특수교 무상급식비 보강 : 22억
-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투명마스크 지원 : 3억원
- ▶ 만 5세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1.4억원

영종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119억 원 등 도시 기본 인프라 보강에 1,349억 원을 반영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 89억 원 등 322억 원을 편성했다.

- ▶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 119억원
- ▶ 반려동물 배변처리 시스템 : 3.5억원
- ▶ 전기화물차 및 전기승용차 보급 : 89억원
- ▶ 온실가스 저감가정 인센티브 지급 : 4억원

산업고도화,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등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구 강소연구개발 특구 26억 원, 디지털 물류 시스템 구축 12억 원,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13억 원 등 129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 ▶ 서구 강소연구개발 특구 : 26억원
- ▶ 남동스마트산단 확대 : 13억원
- ▶ 드론 활용 해양관리 시스템 : 14억원
- ▶ 디지털 물류 시스템 구축 : 12억원
-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 13억원
- ▶ 반도체 패키징분야 인재 양성 : 1억원

한편,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이 달 개최하는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기 배정과 함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은 컨설팅을 통해 집행목표를 달성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민선8기 다시 뛰는 인천, 민생경제 재도약을 구상하면서 준비했다” 며 “역대 최대인 15조 원 규모의 예산 운용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을 해결하는데 전념해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참고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